

지역 소식통

정읍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정읍시는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사업에는 △다문화가정 지원 △지역아동센터 외국어교실 운영 △왕술발 공동체 정원 운영 △구절초 공원 진입로변 꽃길 조성관리 △장급이 정원 조성관리 등 총 5개 사업에 9명의 근로자를 모집한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근무하게 된다.

시급은 9,860원이며, 하루 5,000원의 부대경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나이에 따라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모집 대상자는 18세 이상 시민으로 가구소득과 부양가족 수, 참여 횟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27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청년UP센터, 지역

특화 청년사업 선정

부안군은 최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주최하고 (재)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주관한 2024년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부안청년UP센터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성, 청년수요 반영, 청년 참여 정도 등 3개 항목 평가를 통해 선정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는 2년 연속 군이 공모에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청년날다2' 프로젝트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기초진단 및 사업 컨설팅과 관련 포럼을 추진해 부안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 사업이다. 군은 고충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공감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특화 청년사업으로 제안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박차

고창군, 갯벌 생태교육 현장 육성·주민생활 여건 개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유일의 유인도인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 일원에서 진행 중인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속도를 더한다.

특히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최종 심지인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해 갯벌 생태교육의 현장으로 집중육성하고, 주민 소득향상과 생활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24일 고창군은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국비 등 총사업비 19억원)' 관련, 고창갯벌 보호를 위해 일부 시행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내죽도는 주변 자연생태경관이

우수하지만, 마땅한 숙박시설과 회의장 등이 없어 관광객들이 스쳐 가면서 아쉬움이 컸다.

이에 2021년부터 올해말까지 진행되는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기존 폐교를 리모델링한 탐사르생태학교에 단체관광객이 머물 숙박시설과 교육장 등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장에서는 고창갯벌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국 최초인 유네스코 7가지 보물 등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중이다.

갯벌체험과 낚시체험, 해안갯벌방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민 소득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갯벌건강공원에는 소규모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캠퍼사이트(3면)를 만들어 서해노을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다양한 생물들을 눈앞에서 보고, 서해안나조를 감상할 수 있는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사업부지 토지소유주와 토지매입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서치군 고창군 해양수산과장은 "나후된 죽도항과 섬마을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도입해 서해안권 해안관광 거점지역으로 조성해 어촌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 어린이 동요대회 성료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이 지난 23일 오후 2시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관내 초등학생, 교직원, 학부모,

군민 300여 명이 함께한 '2024 고창 어린이 동요대회'를 열었다. '2024 고창 어린이 동요대회'는 어린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지난 23일 오후 2시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관내 초등학생, 교직원, 학부모, 군민 300여 명이 함께한 '2024 고창 어린이 동요대회'를 열었다.

이들의 동심을 깨우고 꿈과 희망을 담은 노래를 통해 관내 어린이들의 끼와 열정을 선보이는 무대로 추진됐다.

이번 동요대회는 중창부문(2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으로 사전 접수를 받아 고창군 초등학생 18개 팀 113명이 참가해 대회 당일 열린 경연을 펼쳤다.

대상(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상)은 '노래가 만든 세상'을 부른 고창초등학교 늘푸른중창단(8명)이 차지했다.

이외에도 금상(고창문화관광재단 이사장상) 1팀, 은상 1팀, 동상 5팀, 장려상 7팀, 참가상 3팀을 시상했고, 금상과 대상팀의 경우 지도교사에게도 고창교육지원청에서 지도자상을 수여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심덕섭 이사장은 "아이들의 성장기에 만나는 좋은 동요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추억을 함께 한다"며 "이번 동요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물론 어른들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자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기초수급자 진단의료비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정읍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이하 근평진단비)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질병·부상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년 의료기관에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미제출 시 근로능력자로 판단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평진단비는 진단 항목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해 기초수급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시는 기초수급자가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근로평진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다.

지원범위는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전까지의 의료비 사용액이다. 대상자는 연간 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질환 진단 시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체력인증센터 확장 이전

시,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1층... 건강·삶의 질 UP

정읍체력인증센터는 오는 27일부터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서부산업도로 138-5) 1층으로 거처를 옮겨 업무를 재개한다.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체력인증센터는 2020년 8월에 개소해 국민체력인증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체력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국가공인 운동처방사와 체력측정사 총 4명이 근무하며 시민들에게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전문적인 운동처방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체력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확장 이전한 체력인증센터는 면적 500㎡ 규모로 10여 종의 체력측정 장비가 구비돼 있다. 넓고 쾌적한 환경과 주변 체육시설 이용자를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보다 향상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력인증센터에서는 남녀노소 제한 없이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르신까지 각 나이에 맞는 체력을 측정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 체력측정(PAPS)이나 채용관련 체력시험 등에 직접 찾아가서 체력측정·처방 서비스를 시행해 학교 체육교육과 채용시험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센터 이전을 통해 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해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청년 인생설계학교 운영

부안군은 진로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올바르게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기 위해 청년 인생설계학교 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청년 인생설계학교는 전문 진단검사와 맞춤형 코칭을 통해 청년들이 흥미와 적성에 기반한 진로를 탐색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고민 유형에 따라 베이직, 커리어, 리더십 코스로 실시되며 각 코스별로 25명씩 선발해 오는 7월 부안청년UP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베이직 코스는 청년들이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강점을 삶에 적용하

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총 2회차로 구성된다.

커리어 코스는 개인 행동유형을 분석해 자신에게 맞는 조직, 관계, 업무 환경을 알아보고 진로 탐색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총 3회차로 진행된다. 리더십 코스는 사회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대인 관계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총 3회차로 실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18세에서 45세 청년들은 오는 6월 11일까지 카카오톡 채널 '부안청년톡'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청년정책 홈페이지(www.buan.go.kr/youthup)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정신건강 치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

정읍시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으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차상위 대상자나 건강보험 대상자들은 월 1회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약 3~6만원의 비용이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

다. 이는 자칫 정신질환의 재발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중위소득 140% 이하) 중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에 동의한 등록회원에게 제공된다.

지원 내용은 내부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외래진료비, 약제비, 주사제 치료비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